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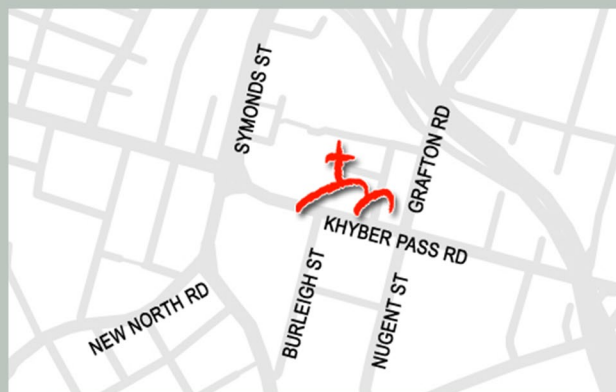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11월 정기 당회가 예배 후 사무실에서 있습니다(3시 10분).
- 남녀 선교회 총회가 12월 8일 주일에 있습니다. 선교회별 연령을 약간 변경합니다.
(12월 월례회는 1일 주일에 그대로 합니다).
- 각 남녀 선교회 회장 모임이 다음 주 월례회 후 느헤미야실에서 있습니다.
- 이번 주 수요일 예배는 통가 공동체 주관입니다.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 한 주간 저녁기도회가 오는 12월 16일-21일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 청소년부와 청년부 연합 수련회가 오는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있습니다.
-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참여한 성도들 감사드립니다. 어디서든지 기도의 끈을 계속 이어가기를 당부합니다.
- 교사 교육이 11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 2019년 성탄 축하 예배와 축하 행사 시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25일).
성탄 감사 예배/ 오후 5-6시 식사 교제/ 오후 6-7시 성탄 축하 잔치/ 오후 7시-8시
(성탄 감사 헌금은 전액 구제한금으로 사용합니다).
- 2남선교회에서 주관하는 2 Mart를 한 번 더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만 개장합니다.

[12월 교회 사역 일지]

- | | |
|-------------------------|-------------------------|
| 1일(주일): 대림절 | 25일(수): 성탄 감사예배 및 축하 잔치 |
| 6일(금): 저녁 기도회 | 29일(주일): 송년주일 |
| 18-22일(월-금): 한주간 저녁 기도회 | 31일(화): 송구 영신예배 |

INFO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 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 pm
청년예배	주일	3:15 pm
수요일예배	수	7:30 pm
새벽기도	금	5:30 am
유아부	주일	1:00 pm
청소년부	주일	1:00 pm

[섬기는사람들]

담임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철
부목사	이성훈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Mb) 021-968-388
LTH-07@calvary.org.nz



해/외/한/인/장/로/교/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019/11/24
21권 47호

배우고
확신한
앞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주일에배	1부 오전 11시 20분	2부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시편 100:4-5	-----	인도자
■ 찬송	36장	-----	다같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252장	-----	다같이
대표기도	-----		현석호 장로
성경봉독	창세기 2:1-3	-----	인도자
찬양대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	나무십자가 찬양단
설교	안식하셨음이나	-----	이태한 목사
찬송	486장	-----	다같이
헌금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 응답송	445장	-----	다같이
■ 축도	-----		이태한 목사

■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예배	통가 공동체 주관	오후 7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3시 15분
기도	황경임 집사		금주기도	최호림 자매
성경봉독	갈라디아서 6:1-5		다음주일	이에은 자매
특송	통가 공동체			
설교	[점을 서로 지라] 이태한 목사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청년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찬송	218장			
주기도	다같이			

[12월 기도 순서]
12월 1일 (주일) / 정관영 장로
12월 4일 (수) / 문일숙 집사
12월 8일 (주일) / 김철재 집사
12월 11일 (수) / 박후임 권사

[12월 예배 봉사자]
예배 안내 / 이광희, 김영옥
새신자 안내 /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 민광호
주방 봉사 /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 A

이번 주는 캄보디아 이형식 선교사 소식입니다.

겨울 문턱이기는 하지만 달력만 11월이고 날씨는 여전히 덥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모두 평안하신지요? 열사의 나라에서 몇 가지 사역 소식을 전해 드리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연합 수련회 단기팀 봉사 사역 이후, 그 열기를 이어서 4박 5일 동안 청소년 연합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공동체가 세워진 이래 처음 있었던 장거리 여행입니다. 총 8시간을 버스로 달려 도착한 곳은 ‘씨엠티.’ 청소년들의 열정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캄보디아의 희망입니다.

단기팀 봉사 사역 1 제주영락교회 의료선교회와 청년들이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작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았습니다. 봉사 기간 내내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저혈압 환자 한 명이 방문하여 저와 팀 모두를 긴장케 했습니다. 하지만 선교팀의 도움으로 다행히 인근 병원에서 진료와 처치를 받고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날 이후... 생명나무 장로교회 출석하고 계십니다.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으십니다. 선교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여름 단기팀 봉사 사역 2 ‘생명나무유치원’의 설립부터 운영까지, 온 교우들이 맘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시는 대구 신천 제일 교회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가족팀이 단기팀으로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생명나무유치원 3회 졸업식, 생명나무 공동체 주일학교 사역, 유치원 새 단장 페인팅, 마을 축호 전도, 사회 복지법인 가정 복지회와 함께 한 “캄보디아 착한 고무신 보내기” 사역 등등 참 많은 땀과 열정을 쏟으셨습니다. 그 귀한 땀방울들을 통해 생명나무에 열매 주렁주렁 열릴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복음은 믿음과 실천”입니다.

졸업과 입학 생명나무 유치원 제3회 졸업식이 있습니다. 13명이 졸업하고 2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제4기 사랑반과 소망반 각각 15명 정원을 채우고 다시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형식 이은주 예나 솔 송 샘 드립니다.

기도 제목

- 1) 생명나무 센터 내 건축 - 꼭 필요한 만큼만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손을 모아 주십시오.
- 2) 선교사 가정 - 가족 모두 건강하고, 맡겨진 소임과 학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호세아서 14장에 회복의 기쁜 소식이 선포된다.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의 의로움이 아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라(4절)"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그들이 돌아와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기를 기다리셨다(14:2). 그것은 지금 우리 각자에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아무리 이스라엘처럼 죄에 넘어짐을 반복할지라도 주께 돌이킬 마음을 주시어 마침내 이루어실 영생의 약속에 감사할 뿐이다.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다. 수년 전부터 이 기도회를 통해 붓물처럼 터지는 보석과 같은 말씀과 간증은 큰 감동이었는데 올해도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함께 눈물로 부르짖는 우리 기도회 성령님의 임재라는 신비하고도 경이로운 손길이 다가오심을 느낀다. 이 기도회가 우리 갈보리 교회에 불씨가 되어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며 호세아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각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본다. 누구에게는 병 고치심, 다른 이에게는 죽음을 통해, 또 목회의 실패를 통해 회복을 이루셨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어찌 병으로 죽어 감이, 어찌 목회의 실패가 회복이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 성경 말씀을 읽으며 수 없는 의문점들이 있었다. 왜 욕은 의인임에도 고통 앞에서야 했을까? 그의 자녀들의 생명을 왜 하나님은 사단에게 내어주었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를 갈대 상자 속에 넣어 생명을 구하셨다고 기뻐했지만 모세 외에 죽어야 했던 그 시대 히브리 아가들은 어떻게 설명하실까? 예수님 시대에도 2살 아래의 사내아이들이 무슨 죄로 죽어야 했나? 예수님 때문 아닌가? 이럴진대 어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가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14:9절에서 말씀하신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예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깨달아지고 있으니 그것은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이다. 이 땅의 삶은 찰나에 불과함을 주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 아니면 볼 수가 없다. 아웅다웅 지지고 볶고 우리는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다. 인생의 마지막이 이르기 전에 우리 주님 만나 뵈 준비가 오히려 시급해진다. 내년 다니엘 기도회에도 내 발로 걸어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을까? 알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 더 간절히 기도의 자리를 찾았다. 가족들도 주위에서도 걱정하시지만 그럼에도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면 내 몸을 질질 끌고라도 참석하여 은혜의 부스레기라도 받아 누리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분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고 또한 동행하고 계심을 믿는다. 어떤 방법 일지라도 아멘 주님만이 옳은 분이십니다. 인정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박수 치며 찬양할 수 없지만,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없지만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며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소망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한상순 집사

1. 복음인 진리의 말씀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임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2.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 한 해를 점검하며 회개와 감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도록.
3. 환우들에게 회복의 역사,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에서 열심을 품는 성도들이 되도록.

창세기2:1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